

環境教育場으로서의 國立公園

— 國立公園利用 —

우리나라에 國立公園運動은 智異山國立公園指定을 첫번째로 12個國立公園이 誕生한 지금에도 一般國民들의 國立公園에 對한 認識不足은 歷歷하여 國立公園指定 趣旨와 目的을 認智 못하고 景觀이 秀麗한 地域을 指定하여 觀光地로서의 對外宣傳 口實을 하는 것으로 錯覺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는 國立公園이란 指定目的과 趣旨를 認識못한데 기인 한다고도 하겠으나 國立公園을 利用하는 利用客의 올바른 利用要素를 提供하지 못한데도 原因이 있는 것으로 自然을 배우며 審美感을 體得할 수 있는 環境教育場으로서의 與件을 造成함이 올바른 國立公園을 利用하는 必須要因의 한 方法이라 하겠다 따라서

國立公園을 環境教育場으로 造成하기 위해서는 公園의 保護 利用에 關한 基本原則에 立脚하여 細部方案이 提示되어야 하며, 別個의 特定計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國立公園의 指定目的과 制度設定의 趣旨가 自然의 保全과 利用의 增進을 前提로 한 國家管理의 地域으로서 環境教育의 對象地임을 公園指定의 目的과 趣旨가 잘 表現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環境教育場 造成問題는 自然의 保護利用을 合理化 하기위한 有効手段의 重要方法이며, 完備한 實現方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國立公園의 가장 바람직한 利用方法의 하나가 觀光과 求景을 對象으로 하기보다는 探訪과 研究의 姿勢를 갖고 自然과의 對話를 즐기는 것으로서 公園의 利用增大 資源 保護의 合理化를 위한 保護 利用體系를 基

準으로 實現의 方法을 具體化 또는 補完擴充하므로써 國立公園의 環境教育場化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現存의 保護 利用體系를 補完擴充하고 合理化하는 것을 原則으로 展望하고 誘導하고 어떻게 合理化 할 것인지 어떠한 資源을 어느 程度 保全하고 어느 水準에서 利用하게 할 것인지를 哲學的 思考基盤위에서 適正한 利用行爲活動의 범위를 策定하고 未來의 利用壓力을 適正하게 分散하는 方向에서 利用 루트를 體系化하여 過密集中 利用에 의한 人爲의 破壞를 止양하고 公園全域分散利用을 위한 公園內部 利用施設을 擴充하여 各個公園全體가 지니는 特徵的 要素를 관찰하고 對話로 이루어지는 審美感 體得을 위한 制반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不使없이 쉽게 接近될 수 있도록 이에 必要한 與件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러한 與件造成의 一環으로 既 指定된 國立公園保護의 制度的 體系위에서 國民自然環境教育場으로서의 利用의 效果를 거두워 드리기 위한 根本的 方案이 考慮되어야 하는 것으로 各個國立公園內 資源이 지니는 傳說 유래의 教育的 價値며 棲息動·植物의 學術的 教育資料化를 위한 具體的 調査 撮影 등을 實施하여 標本化하므로써 求景하여 지나치는 觀光이 아니라 관찰하고 익히는 자연박물관의 실습장으로서의 觀光教育的 價値를 추구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없이 스스로 參與할 수 있어 國民이 보호하고 利用하며 배우는 自然環境教育場으로서의 機能을 充分히 발휘할 수 있는 方案이 計劃 實踐되어야 한다.

金 憲 奎 (檢 理 事)